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서문>

- I . 성경에 대하여 -----(문 1-7)
- II . 사도신경에 대하여 -----(문 8-22)
- III . 십계명에 대하여 -----(문 23-41)
- IV .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문 42-53)
- V . 주기도문에 대하여 -----(문 54-66)
- VI .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문 67-70)

<서문>

2016년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교단 헌법에 포함되어있는 교리 부분의 「요리문답」을 개정하기로 하고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106회 총회는 2021년 9월 00일 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우리 교단의 교리 중 하나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교단은 그간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입교와 세례 시의 문답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의 교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문답형식의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개혁교회의 요리문답 중 중요한 것으로 1541년의 칼뱅이 주도하여 만든 「제네바교회 요리문답」, 1563년 당시 독일의 팔츠를 다스리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시대에 개혁자 불링거와 칼뱅 등의 신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1647년 영국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해서 시발된 개혁신학의 5대 표어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으로서 본 교리문답은 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개정을 위한 몇 가지의 핵심지침들을 정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기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요리문답’이란 용어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므로 그 이름을 ‘요리문답’에서 ‘교리문답’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이번 발간되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이 교리지침서의 역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 것을 논의했습니다. 교리문답이 경직된 교리의 전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아울러 공공생활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이전의 본 교단 신앙고백들과 1986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001년에 제정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 I. 성경에 대하여 II. 사도신경에 대하여 III. 십계명에 대하여 IV.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V. 주기도문에 대하여 VI.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라는 목차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요리문답들은 기독교의 세 보배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기독교 구원의 도리와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들의 윤리생활과 삶의 지침을 요약한 십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구현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주기도문을 기본 틀로 하여 본 문답집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요리문답 속에 있는 예배와 성례에 대한 부분과 교회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회는 금번 교리문답을 새롭게 작성하며 두 기둥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과 세례 및 성찬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측면입니다(마 22:35-40).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 복음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와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의 양 측면을 교리문답 속에 함축시키려 한 것입니다(요 17:21; 요일 4:20).

우리 총회는 이번 새롭게 단장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이 초신자들을 포함한 일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널리 사용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세례자 교육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기존의 「웨스트민스터소요리문답」과 함께 새로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적극 활용하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9월 28일

1. 성경에 대하여

문 1: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사 43:21; 롬 11:36; 고전 10:31; 엡 1:6).

문 2: 기독교의 정경으로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답: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한 66권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딤후 3:16-17; 벧후 1:21),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문 3: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연속성은 무엇입니까?

답: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며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완전한 계시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히 12:24; 요 5:39, 46), 신약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회상하면서(사 42:6; 49:8)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계 21:1-8).

문 4: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요 3:16)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미 6:8)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인간들(창 3:8, 19; 마 25:4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져 구원받게 되며(행 16:31),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피조물이 새롭게 됨을 가르치는 책입니다(요 20:31).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막 1:15). 이에 있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의 길에 대해 설명하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 5: 성경 66권을 분류하십시오.

답: 성경 66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분류	권수	책명
구약	율법서	5	창, 출, 레, 민, 신

	역사서		12	수, 샷, 룻,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	
	성문서(시가서)		5	읍, 시, 잠, 전, 아	
	예언서	대예언서	5	사, 렘, 애, 겔, 단	
		소예언서	12	호, 율, 암, 읍, 온, 미, 나, 합, 습, 학, 속, 말	
신약	복음서		4	마, 막, 눅, 요	
	역사서		1	행	
	서신서	바울서신	교리서신	6	롬, 고전, 고후, 갈, 살전, 살후
			옥중서신	4	엡, 빌, 골, 몬
			목회서신	3	딤후, 딤후, 딤후
		공동서신	8	히, 약, 벤티전, 벤티후, 요일, 요이, 요삼, 유	
	예언서(묵시서)		1	계	

문 6: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 말씀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것에 근거한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요 5:39; 롬 10:13-15),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행 2:37), 또한 거룩함과 위로로써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롬 10:10-13; 엡 2:8-9; 살전 1:6).

문 7: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 효력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합니까?

답: 우리는 기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읽어야 하며(신 6:5-9; 벤티전 2:1-2),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요 14:26)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히 4:2),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약 1:21-22; 요일 4:20-21).

II. 사도신경에 대하여

문 8: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 9: 사도신경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답: 헬라어를 쓴 동방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결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반면 사도신경은 라틴어를 쓴 서방교회의 신조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보편화 되어 8세기경에 ‘공인된 문서’가 되었습니다.

문 10: 사도신경의 전체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답: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은 두 종류로, 기독교적 신앙고백(마 16:16)과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고후 13:13).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성령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화해되었고(고후 5:18-19), 하나님과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됨을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골 1:20).

문 1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신앙고백은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면서 또한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히 12:1). 사도신경의 첫 단락은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고후 6:18).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바 아버지(막 14:36; 갈 4:6)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만유 안에 그리고 만유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엡 1:23; 4:6).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옛세 동안 온 우주를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을(창 1:1; 요 1:3)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26).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예정한 분이시며(엡 1:4-5), 아직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시 103:19).

문 12: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 왕, 제사장의 중보자적 직분을 가지시고(딤후 2:5; 히 9:15) 인류와 우주만물(골 1:20; 엡 1:10)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롬 5:1, 11).

문 13: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써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빌 2:7-8).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마 1:20) 고백은 죄가 없으신(히 4:15)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마 3:17).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문 1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 받으셨으며(마 27:24),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류와 우주만물(골 1:20; 엡 1:10)은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습니다(벧전 2:24, 고후 5:18-1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속죄의 은총을 나타냅니다(롬 3:19-31; 고후 5:17-21; 고전 15:24).

문 15: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고전 15:20).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골 2:12).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갈 2:20).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막 15:25). 그러나 우리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함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막 8:29-31; 9:7-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문 16: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막 16:19; 빌 2:8-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간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서(행 1:11)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고후 5:10).

문 17: “나는 성령을 믿으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고전 2:14)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며(고전 12:3), 우리를 성화시키시고(고전 6:11), 각종 은사들을 후히 주시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고전 12:8-11). 성령님께서 인간과 온 피조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엡 1:13).

문 18: “거룩한 공교회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며(행 2:37-47; 16:5; 딤후 3:15), 세상을 향하여 파송 받아 흠어지는 공동체입니다(요 20:21). 교회는 인간의 구원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며 통로입니다(고전 1:2-3).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며 외형적으로는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성령님의 전(고전 3:16)이고, 그리스도의 몸(고전 12:12-27)이며, 하나님의 백성(벧전 2:9)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 고백합니다(엡 4:4-6; 5:27). 세계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 안에서 한 몸(엡 1:33)을 이루는 보편적인 공교회입니다.

문 19: “성도의 교제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로 확장되며,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로 이어집니다(요 17:21-24).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 설교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십니다(고전 12:12-27).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 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시 133:1-3).

문 20: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창 1:27), 아담을 비롯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창 3:6).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롬 3:9-18). 이런 죄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요 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행 10:39-41).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하여(롬 1:17) 죄에서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성령님 안에서 중생한 존재들로 성화됩니다(롬 8:1-6; 요 3:3).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존재들입니다.

문 21: “몸의 부활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은 타종교에는 없는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신자들만의 감격스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신(막 9:2-3)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요 11:25-26)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약하고 천한 몸이지만, 장차 우리는 강하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고전 15:42-44)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문 22: “영생을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신자들은 장차 부활체로 변형되어(막 9:2-9)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요 6:58; 14:3; 시 23:6). 우리는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계 21:1),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축복과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계 7:15-17; 22:3-5). 이러한 종말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일임과 동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함께 이미 역사 안에서 선취된 일입니다(마 12:28; 요 3:18-21; 11:26).

Ⅲ. 십계명에 대하여

문 23: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문 24: 십계명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앞부분의 네 계명들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신 6:5; 막 12:30), 뒷부분 여섯 계명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마 22:37-39).

문 25: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답: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시므로(사 43:11),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신 4:39-40).

문 26: 처음 돌비에 적힌 네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전반부의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말하며(왕하 17:36), 제2-4계명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 언급합니다(신 6:4-5).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곧 헛되거나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문 27: 나머지 여섯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사항들입니다. 이 여섯 계명들은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명령들로, 사적이며 공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10계명은 앞의 계명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제6-9계명에서 언급된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열거합니다(약 1:15). 이웃의 생명과 아내와 재산과 명예입니다(마 5:27-37).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며(마 15:19), 죄의 결과 온갖 불행과 파멸이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덕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며, 그러한 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약 3:17),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갈 5:16-26).

문 28: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해방하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며(사 42:8; 마 4:10),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한 부분이라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문 29: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2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령으로 곧 영적으로 예배드릴 것을 요구합니다(신 32:46; 요 4:24). 제2계명은 이 세상의 자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간의 손이나 생각으로 만든 형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다(삼상 15:23; 마 15:9).

문 30: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시 29:2)과 속성(계 15:3-4)과 말씀(시 138:2)과 사역(시 107:21-22)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모아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요 4:24). 신

자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문 3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한 주간의 제 7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계 1:10). ‘주님의 날’ 곧 주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새 창조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마 28:1-6).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리의 힘을 세상 업무나 오락에 사용함으로써 주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사 58:13). 이에 우리는 온 힘과 몸을 바쳐 주께 예배해야 합니다(신 6:5; 막 12:30; 롬 12:1-2).

문 32: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5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함을 요구합니다(엡 6:1-4; 벰전 2:17).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 등의 선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들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문 33: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6계명은 힘써 인간과 온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엡 5:29).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파괴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까지 하게 합니다(마 5:21-26). 우리는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마 5:43-47).

문 34: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7계명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고전 3:16; 고후 6:16)이므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절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와 결혼생활에 있어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마 5:27-28; 엡 4:29).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마련으로(약 1:15),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결국 간음에 이르게 됩니다(마 5:27-28).

문 35: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8계명은 유형, 무형의 재산을 정당하게 다루며 획득할 것을 요구합니다(레 6:1-7; 잠 10:4). 이 계명은 이웃의 정당한 몫을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와 불의한 사회구조를 경계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상숭배로서(골 3:5; 마 6:24),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야기하게 합니다.

문 3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속 8:16-17). 특히 법정에서의 증언하는 일에 있어 진실해야 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잘못된 의심과 불의한 판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악한 말과 비방으로 남들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입니다(레 19:15-16; 마 5:33-37). 우리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웃을 헐뜯거나 중상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모든 언행을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 3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해 바르며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시 1:1-6; 딤후 6:6).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며,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부당하게 행동함입니다(갈 5:26).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약 1:15).

문 38: 십계명을 위시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며(롬 7:7, 13), 우리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마 5:17; 롬 3:31).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갈 3:23-25). 십계명의 제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게 고통 주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더 나가 이웃에 행복을 주는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마 7:12; 마 19:20-22; 롬 13:10).

문 39: 십계명을 위시한 구약 율법의 국가법으로서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답: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신 7:6-11). 구약의 율법은 국가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법적 정신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신 16:18-19)과 약자 보호(신 15:11; 24:19-21)의 정신입니다. 법치국가와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강조합니다.

문 40: 사람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전 7:20; 약 1:14; 요일 1:8). 십계명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중생 후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님께서로부터 비롯됩니다(빌 2:13; 4:13).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실하심을 용납하시며 기뻐하십니다(히 6:10; 마 25:20-23).

문 41: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생명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요 3:16-18; 행 11:18). 이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작은 자를 섬기며 살 것을 성경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마 25:40; 막 12:30-31; 눅 10:26-27).

IV.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문 42: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외적인 수단이나 통로는 하나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 28:18-20).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항상 새롭게 전달되는 수단들이 있는데(행 20:32),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와, 세례(행 2:38-42)와 성찬(고전 11:23-26)으로서의 성례와 기도입니다(요 16:23-24).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게 되는바,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가 은혜를 전달하며 영성을 훈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로서 이 둘은 진정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외적 수단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3:5; 요일 5:7-12),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 43: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은총과 사역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응답하는 산 제사(롬 12:1)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문 44: 예배의 두 측면은 무엇입니까?

답: 예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순종의 제사와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며 온 피조물들을 보전하는 것으로서의 두 측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히 13:15-16; 고후 9:13).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을 실천하며, 이와 더불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배 행위의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잠 1:7) 그분 앞에 엎드려 드리는 경배로서, 그것은 이웃을 섬

기고 세상의 공적인 유익을 위한 봉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부정을 보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롬 12:1-2; 마 5:23-24; 약 1:26-27; 마 25:37-40).

문 45: 예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답: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경배의 찬송, 신앙고백과 참회의 기도, 성경봉독과 말씀의 선포, 봉헌과 감사의 응답, 성찬성례전, 위탁의 말씀과 강복선언 곧 축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예배 요소들 중 하나인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마 6:9-13)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함과 동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 46: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은 어떤 위치를 갖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성찬예식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 선포에서는 봉독한 성경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며 해석하고 회중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성찬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대로 주님의 살과 보혈을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예식을 통해 성도는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롬 11:17, 24),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롬 12:5; 고전 12:27).

문 47: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 성례전과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마 26:26-28; 28:19; 눅 22:19-20).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택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며 각인되고 적용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언약의 축복에 따른 성령님의 역사에 의거합니다(마 28:19).

문 48: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켜져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여졌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행 18:8; 롬 6:3-4; 갈 3:27; 골 2:12; 벧전 3:21).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성례(마 28:19; 행 8:36-38)로서, 물은 죄 씻음의 표징입니다(행 22:16). 세례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입교 예식이기도 합니다(고전 12:13; 엡 4:3-6).

문 49: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마 16:16). 그는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례 후에는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세례교인의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고백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창 17:7; 행 2:38-39, 16:32-33).

문 50: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고전 12: 12-13).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은 성령님의 각종 은사를 받아 각기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는 유기적 생명체가 됩니다(고전 12:14-27). 세례 공동체인 교회는 마치 ‘겨자씨’처럼(마 13:31-32) 자라고 성장하며 또 ‘누룩’처럼(마 13:33) 확산되는데, 이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취되고 성장합니다(마 6:10).

문 51: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찬은 떡이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성례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표징으로서, 그가 세우신 새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막 14:22-25; 눅 22:19-20). 성찬식은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1:14; 6:35; 신 8:3; 마 4:4). 다음으로 성찬식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마 26:28; 렘 31: 33-34; 히 10:17).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장차 하늘나라에서 있을 주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눅 13:29; 22:30).

성찬 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재하는 것도 아닙니다(요 6:53-57, 63).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하실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 실재하심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문 52: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와 같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신앙고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을 결단하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이에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성찬 상에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님 안에서 임재하였는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며(고전 10:21),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고전 11:27-32). 그리고 성찬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전

보다 더욱 깊고 넓어지면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요청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성령임재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삶과 사역을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게 됩니다(눅 22:19-20). 이를 인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역사와 창조세계 속에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사 65:17-25; 계 21:5).

문 53: 성찬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의 표징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 신앙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룸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고전 11:18-22). 성찬은 영적 밥상공동체로서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즐기게 됩니다(사 25:6; 계 22:17). 성찬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햇볕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 등이 스며있으며 농부의 땀과 수고도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은 장차 올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를 미리 축하합니다(눅 22:30).

V. 주기도문에 대하여

문 54: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13절)

문 55: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시63:1-8; 73:25-26; 눅 6:12; 요일 1:3; 계 3:20),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눅 2:28-32)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 하며(시 103편),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시 51편). 기도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질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전을 위해 기원하며(롬 9:1-2; 10:1)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문 56: 주기도문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답: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 당신 곧 ‘아버지’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2인칭 단수 부분,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1인칭 복수 부분(마 6:11-13)과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을 찾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요 몸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단락인데, 이 두 단락들을 연결하는 위치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사구는 두 번째 단락의 하늘을 향한 기도와 세 번째 단락의 땅을 향한 기도를 묶는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합니다(마 22:36-40).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송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대상 29:11-12).

문 5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부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심과 동시(시 57:5),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롬 8:15; 고후 6:18).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보다 우리 존재에 더 가까이 내재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엡 4:6).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마 18:19-20).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막 11:17).

문 58: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출 15:11).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들과 구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선적 책무입니다(왕상 8:11; 시 8:1).

문 59: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동기와 중심 목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메시아 직분을 수여받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대전제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눅 4:43).

문 6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구입니다(마 6:33).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창 12:1-3, 22:17-18).

문 6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일용할 양식을 주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자는 간구합니다.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이 관심입니다(요 6:9-13). 우리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마 19:21). 자원을 아껴 쓰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나눔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문 6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이 간구에서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강조됩니다(요일 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눅 23:47; 롬 5:8). 그는 인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히 7:26-28). 남의 허물을 함께 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빛이 비취집니다(눅 23:34; 요 1:29; 고후 2:10).

문 63: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시험에 들면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며, 그러한 죄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약 1:15). 이 간구는 나를 죄와 파멸로부터 건져 달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마 7:7). 우리는 보통 나만 불행에서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만큼 남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이 간구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죄와 파멸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문 64: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후렴으로서 송영 부분입니다(대상 29:11-12).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왔던 간구는 다시 하늘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입니다.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하늘로 올라 구름이 되며 다시 그 구름이 땅을 적시는 비가 되듯,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하나의 순환구조

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순환적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세계를 적시며, 다시 그 영광이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요 14:13; 시 115:1).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문 65: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아멘’은 아람어로서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 인도자나 찬양대가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말하면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대상 16:36; 느 8:6).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며, 이 말 뒤에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고후 1:20).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딤후 2: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계 3:14).

문 66: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그리고 온 생태계를 포함한 우주와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간구를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므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VI.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문 67: 교회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요 20:21; 행 1:8). 선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마 9:35; 막 1:15),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며(골 1:15-20), 정의와 평화와 창조보전을 이 세상 속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사 11:1-9; 52:7; 시 85:9-10).

문 68: 복음전도와 하나님 나라 구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독교의 선교는 복음 선포로서 전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봉사, 양육, 교제 등을 포괄합니다(마 9:35). 이와 같이 선교가 전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이분화되어선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은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기독교는 그 구원의 내용 속에 개인 영혼의 구원과 함께(롬 5:5-11)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요삼 1:2; 눅 4:43). 복음전도를 통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선교의 책임을 갖습니다.

문 69: 교회의 선교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도 제자들을 보내심을 말씀하셨습니다(요 20:21-23).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보내시는 선교의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함을 언급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선교에 있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확인하게 됩니다(행 2:4; 4:8-9; 4:31; 8:17; 8:29; 10:19; 10:44; 11:12; 13:2; 16:6).

문 70: 증인으로서 선교자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십니다(요 20:21; 사 43:11). 온 세상에 구원과 살롬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사 9:6), 선교자는 역사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할 뿐입니다(사 43:10; 44:1-2).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함으로써(갈 2:20),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 참고자료 >

헌법 제1편 교리 제7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목차>

머리글: 개정 취지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철 목사

제1장/ 요리문답 개정의 경과와 신학적 근거

1. 지난 2016년 101회 총회부터 2021년 제105회 총회까지의 경과에 대한 요약
 - 1)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의 경과
 - 2)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의 경과
 - 3)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의 경과
 - 4)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의 경과
 - 5)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의 경과
 - 6) 마지막으로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성철 목사)의 활동 결과,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에 다음의 청원을 드립니다.
2. 개혁교회의 주요한 세 가지 교리문답의 구조 분석
3. 「요리문답」을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 새롭게 명명함

4. 본 개정을 위해 참조한 주요 자료들

5. 교리에서 삶으로

- 1)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리문답
- 2) 새로운 교리문답의 또 하나의 중심적 구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6. 새로운 '교리문답'은 헌법 속의 전통적 신앙고백들과 우리 교단이 1986년과 2001년에 만든 두 가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됨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의 내용을 반영하다.
- 2)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의 내용을 반영하다.

7. 미래적 제언

머리글: 개정 취지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철 목사

지난 2016년 9월에 있는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교단 헌법에 포함되어있는 교리부분의 「요리문답」을 개정하기로 하고 ‘요리문답개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일을 위임받아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는 개정작업을 하였으며, 헌법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02회기부터 105회기 동안 본 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금번 제106회 총회에 최종적인 요리문답(교리문답)을 받아주실 것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본 교단이 사용하던 요리문답은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서 입교와 세례 시의 문답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의 교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문답형식의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개혁교회의 요리문답 중 중요한 것으로 1541년의 칼뱅이 주도하여 만든 「제네바교회 요리문답」, 1563년 당시 독일의 팔츠를 다스리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시대에 개혁자 불링거와 칼뱅 등의 신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1647년 영국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등이 개혁교회의 주요한 요리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 요리문답들을 바탕으로 수정된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기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하면서 이번의 개정에 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요리문답’이란 용어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므로 그 이름을 ‘요리문답’에서 ‘교리문답’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이번 발간되는 「교리문답」이 교리지침서의 역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리문답이 경직된 교리의 전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공공생활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를 가지고 본 요리문답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된 「교리문답」은 본 교단의 기본적인 신앙고백들과 1986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001년에 제정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등의 내용들도 반영하며, “Ⅰ. 성경에 대하여 Ⅱ. 사도신경에 대하여 Ⅲ. 십계명에 대하여 Ⅳ.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Ⅴ. 주기도문에 대하여 Ⅵ.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라는 목차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요리문답들은 기독교의 세 보배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기독교 구원의 도리와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들의 윤리생활과 삶의 지침을 요약한 십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구현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주기도문을 기본 틀로 하여 본 문답집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 개정된 교리문답은 기존의 소요리문답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결과 수정되어진 것입니다. 수정된 교리문답을 만들며 그 문항 수가 107항에서 70항을 축소되었는데, 그것은 이전의 십계명의 문답이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 각각 4문항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문항으로 통합함으로써 문항의 수가 축소되게 된 것으로, 전체적 구조에선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교리문답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우리 개척교회의 교리를 문답형식으로 풀어쓴 것으로, 총대님들이 전체 내용을 살펴 이번 총회를 통해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난 여러 번의 총회를 거쳐 논의한 새로운 교리문답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어 세례자를 교육하는데 더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를 기존의 신자들과 다음 세대의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해설서들이 후속적으로 출간된다면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의 안건을 수임받아 본 교단의 교리 분야의 주요한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정성으로 개정된 본 교리문답을 지난 회기 동안 본 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였으며, 하나의 개정된 안으로서 다음의 신규 요리문답의 대조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유성의 대전서노회 회관에서 모여 지난 요리문답을 개정된 교리문답을 개정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교리문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사용하여 온 「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소요리문답」)은 본 교단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요리문답으로, 이것을 제하고 개정된 새로운 요리문답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이전의 전통적인 「요리문답」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교리문답을 추가로 받아들일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전의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요리문답」을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기준으로 사용하여 온바, 그를 제하고 새로운 교리문답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이전 것도 그대로 두고 그에 더하여 새로운 교리문답을 덧붙여 놓는 것이 기존의 전통을 손상치 않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기존의 「요리문답」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새롭게 기술한바 하나의 새로운 교리문답으로 추가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서, 이번 제106회 총회가 이를 개정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교리문답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금번의 새로운 교리문답의 제목을 이전 우리가 새로 추가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의 이름에 상응하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짝을 이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줄여서, 「요리문답」)이 있듯,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짝을 이뤄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를 새롭게 제정한다면, 우리 헌법 중 교리 부분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5년에 걸쳐 본 교리문답을 다듬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을 이 내용을 검토해오면서 이 교리문답이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의 완성된 내용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에 새로운 교리문답으로 받아주실 것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제106회 총회 앞에 이 교리문답을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교리문답으로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이란 이름으로 받아주실 것을 청원드림과 동시에, 이 교리문답을 통해 교단의 세례자 및 새 신자 교육이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취지문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 교리문답의 제정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신 지난 5년 동안의 ‘헌법개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의 위원들 및 헌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요리문답 개정의 과정과 신학적 근거

1. 지난 2016년 101회 총회부터 2021년 제105회 총회까지의 결정에 대한 요약

지난 동안 본 교리문답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처음 제101회 총회가 기존의 요리문답을 개정 증보하도록 위임을 하였는데,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가 이렇게 수임된 사항을 넘어 너무 많이 요리문답을 개정하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요리문답은 일차적으로 2012년부터 본문에 대한 수정을 시작하여 2015년에 일차적으로 개정 내용을 결의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가 수임한 사항은 일부 수정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위원회였던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부분은 주로 성경본문에 대한 것으로, 주로 이전의 『개역 성경』의 내용을 『개정개역 성경』의 내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러 위원들과 힘을 합하여 이전의 「요리문답」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하여 나름의 잘 구성된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바, 지난 「요리문답」의 내용은 전통적인 것으로 보존하고, 금번 2021년 제106회 총회가 새로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교리 부분에 추가하여 받아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지난 경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의 경과

- (1) 2016년 9월 27일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교단 헌법에 포함되어있는 교리 부분의 「요리문답」 개정 증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일을 위임받아 본 위원회는 새로운 요리문답을 위한 작업을 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쳤다.
- (2) 2016년 11월 전문위원들께 관련된 논문 및 디지털 자료들을 수합하여 우송하였다.
- (3) 2017년 1월 말까지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작성한 다음 세미나를 열기로 하였다.
 - 이형기 위 원: “본 교단 요리문답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조용선 위 원: “독일의 입교교육에 대한 고찰”

- 김인주 위 원: “한국 교단들의 세례자 예비교육에 대한 고찰”
- 노영상 위원장: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연구”

(4) 전문위원들과 임원들이 위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근간으로 하여 개정할 범위를 정하고,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및 최근 우리 교단의 교리들과 교회 생활에 있어 보강하여야 할 범위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A4 7페이지 정도로 작성하여 2017년 2월 말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5) 개정 초안의 윤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2-6시까지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정 범위와 분량 등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의 요리문답들은 대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랐는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리문답 속에 포함시키기로 하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형기 교수께서 초안을 작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수정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6) 각 위원들이 위의 초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안을 작성한 다음 2017년 3월 15일까지 제출기로 하다. 이 과정에서 이형기 교수께서 쓰신 초안의 내용이 길어 축약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바 있었다. 이형기 교수의 초안을 기준으로 하여 교리문답의 각 부분 부분들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문/

- I. 성경에 대하여/ 노영상
- II. 사도신경에 대하여/ 김인주
- III. 십계명에 대하여/ 조용선
- IV. 예배와 성례전에 대하여/ 임희국
- V. 주기도문에 대하여/ 노영상
- VI. 교회의 하나 됨과 선교에 대하여/ 안광덕

(7) 이상에서 만든 초안을 가지고 전 위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를 개진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하여 2017년 5월 말까지 초안을 작성한 위원들이 개정안을 마무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6월 중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원고를 정리하여 위원들께 이메일로 회람한 후, 6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주 시내 '제주노회회관'에서 1박 2일 동안 모여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8) 2017년 6월 중 감수위원들의 감수를 거치기로 하였으며, 이에 감수위원으로 김명용 총장, 이형기 교수, 정장복 총장, 황승룡 총장을 선임하여 감수를 의뢰하였다.

(9) 2017년 7월 중 총회 임원회에 통과를 한 다음, 8월에 인쇄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2)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의 경과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에서 위원회가 만든 개정안을 헌법위원회로 이관하여 1년간 연구하기로 하였다. 헌법위원회의 수임 안건으로 이첩된 것이다.

3)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의 경과

이후 2018년 제103회 총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제103회 총회에서 수임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개정(안)은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회 교단 헌법에 포함되어있는 교리 부분인 「요리문답」을 개정토록 수임하였으나,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 새롭게 변경 작성됨에 따라 수임된 원안과 상이하고, 헌법 개정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제103회 헌법개정위원회로 다시 보내 1년간 심의하여 104회 총회에 상정토록 청원하고 이를 허락했다.

4)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의 경과

이상과 같이 제104회 총회 수임 안건 연구에 따른 분과별(교리, 정치, 권징)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으며, 헌법 개정(안)의 최종적 자구 수정에 관해선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한 바 있었다.

위의 결의에 따라 제104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조의환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검토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이에 최종안으로 내놓았는데, 그 청원된 개정안은 예전의 요리문답의 구조(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제103회 총회에서 수임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개정(안)은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회 교단 헌법에 포함되어있는 교리부분인 「요리문답」을 개정토록 수임하였으나,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 새롭게 변경 작성됨에 따라 수임된 원안과 상이하고, 헌법 개정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104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도록 하였다.

5)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의 경과

지난 2020년 9월 제105회 총회에 청원된,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 개정(안)은 코로나19 관계로 105회 총회의 일정이 축소되어 운영됨으로써, 논의하지 못하고 다음 제106회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당시 헌법개정위원회의 청원안은 다음과 같다.

이에 다시 제106회 총회에 총회 헌법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 (별첨)
- 헌법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헌법시행규정 (별첨)

6) 마지막으로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성철 목사)의 활동 결과,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에 다음의 청원을 드리게 되었다.

금번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요리문답」을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으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하나의 새 요리문답으로서, 헌법 제1편 교리 중 마지막 다음에 제7부로 채택하여 주시고, 기존의 요리문답은 전통적 요리문답으로 보존해주실 것을 2021년 제106회 총회에 청원드리는 바 이에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에 대한 부연 설명: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교리문답」으로서 받아줄 것을 청원함

본 제105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와 지난 5년 동안 헌법개정위원회가 수정하여 온 「교리문답」을 검토하여 취지에 적합하도록 잘 정리하였는바, 이 새로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총회가 새로운 요리문답으로 결의해줄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는 헌법에 들어있는 「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개정과 증보를 위해 총회가 위임한 위원회로서,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입장을 견지하되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전의 요리문답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총대들께서 헌법개정위원회가 결의한 새로운 교리문답의 내용을 검토하여,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하나의 새 요리문답으로 채택하여 주시고 기존의 요리문답은 전통적 요리문답으로 보존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2년 97회 총회는 기존의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번역을 『개역개정 성경』과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정할 것을 결의하여,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그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한 다음 2015년 12월에 공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이러한 개정에 흥미 있음을 인지하고, 2016년 「요리문답」의 개정 증보를 위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명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리문답」에 대한 자구 수정을 이미 한 바 있는바, 본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은 요리문답에 대한 자구 수정 정도에 있지 않았으며, 요리문답 전체에 대한 전면적 보완하는 일이 위임된 것입니다. 총회가 2016년 요리문답의 개정 증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고, 이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중 「요리문답」의 자구 수정이나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2016년 11월 15일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 101-2차 위원회 시 결의).

이러한 결정들에 의거하여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는 기존의 「요리문답」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요리문답」을 수정본으로 내놓았는바, 총회는 이 취지를 받아들여 금번 새로 개정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교리 부분 말미에 추가하여 받아들일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총회는 이전 1986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2001년에 제정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기존의 교리 내용에 추가하여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여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기존 교리에 추가하여 받아 줄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기존 우리가 세례문답 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요리문답」도 살리고, 또한 지난 5년간의 노력을 통해 잘 작성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도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없애고 개정된 교리문답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두 개의 교리문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교단의 전통도 살리며 오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리문답도 갖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개정 증보된 교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어 세례 문답 시의 교육자료로 유리한 점이 많은 바, 기존의 요리문답을 잘 보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서 1647년에 영국에서 제정되어 지금으로부터 374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리문답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요리문답개정연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요리문답」을 보완하고 오늘의

사용하기에 용이한 교리문답으로 구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금번 제106회 총회에서 새로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으로서 받아주 시기를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2. 개혁교회의 주요한 세 가지 요리문답의 구조 분석

우리 한국교회는 요리문답으로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만을 헌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함께 1541년 존 칼뱅이 직접 만든 「제네바교회 요리문답」과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개혁교회의 중요한 요리문답들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 세 가지의 입장을 잘 종합하여 보다 진전된 요리문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일단 이 세 요리문답을 구조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

	칼빈의 「제네바교회 요리문답」(154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요리문답, 1647)
전체 구조	일원적 구조: 하나님을 알되, “그를 합당하게 경배하는 형식으로 그를 알아야”(문 6) 하는데, 이는 우리의 바른 믿음(사도신경)과 삶(십계명)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생활(기도, 말씀경청, 성례)을 통하여 현실화 된다.	삼중적 구조(문 2): 1. 죄와 비참함의 상태 2.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3. 구원에 감사하는 방법	이중적 구조(문 3):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2.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4대 요소의 배치	1. 사도신경(문 1-130) 2. 십계명(문 131-232) 3. 주기도문(문 233-295) 4. 말씀과 성례(문 296-373)	1. 서문(문 1-2) 2. 사도신경(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 문 3-64) 3. 성례(문 65-85) 4. 십계명(문 86-115) 5. 주기도문(문 116-129)	1. 사도신경(문 1-38) 2. 십계명(문 38-81) 3. 구원의 수단들(문 82-88): 말씀(문 89-90), 성례(문 91-97), 기도(주기도문 해설, 문 98-107)
전체적 요약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2)이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사도신경),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평생 동안 그를 경배하도록 노	우리가 참된 위로(구원)을 받기 위해 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참 신앙은 사도신경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것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예정)을 강조함(문 7, 8).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만의 구원자이심(문 21). 영생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받음

1) 황재범,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2013), 17.

<p>력하며(십계명), 구원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의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구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기도하며(주기도문), 그가 모든 것들의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마음과 입으로 인정해야(말씀과 성례) 한다.”(7).</p>	<p>은 성례를 받음으로 견고하게 된다. 견고하게 된 신앙은 십계명의 실천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p>	<p>(문 20).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의 주도적 활동(문 30)과 이 활동의 구체화 과정을 강조함: 실제적 부르심(문 31), 칭의(문 33), 양자(문 34), 성화(문 35).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 수단(말씀, 성례, 기도)을 주셨다.</p>
---	--	---

위와 같은 삼대 요리문답의 구조에서와 같이, 요리문답들은 일단 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를 그것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믿음과 구원의 주요 교리로서의 사도신경/ 그 구원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주기도문), 예배, 성례/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으로서의 십계명의 내용이 요리문답들의 근간인 것이다.

이에 있어 본 위원회는 교리문답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순서에 따라(문 1-3),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사도신경에 대하여, 다음으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예배와 성례전 및 주기도문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언급을하기로 한 것이다.

기독교 구원의 도리와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들의 윤리 생활과 삶의 지침을 요약한 십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구현을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 이에 있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며, 아울러 십계명은 믿음과 영성을 의거한 성도의 윤리 생활에 대해 기술하는 반면, 주기도문은 은혜의 수단 중의 하나로서의 기도를 통한 영성의 고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쉽 없이 기도함을 통해 바른 행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요리문답의 중심 구조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서 본 교리문답도 이를 준용하였다. 아울러 위의 요리문답들에는 없지만 요리문답을 마치는 부분에 기독교인의 주요 사명 중 하나인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새로 개정하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새로 개정되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의 전체 목차

- 서문 -

I . 성 경 에 대 하 여 - - - - - (문 1 - 7)

II. 사도신경에 대하여-----	(문 8-22)
III. 십계명에 대하여-----	(문 23-41)
IV.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문 42-53)
V. 주기도문에 대하여-----	(문 56-66)
VI.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문 67-70)

3. 「요리문답」을 「교리문답」으로 새롭게 명명함

본 위원회는 기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요리문답’이란 용어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므로 그 이름을 ‘요리(要理, 중요한 교리)문답’에서 ‘교리(敎理, 교회의 가르침)문답’으로 변경하기로 제안하였다.

요리문답은 영어로 ‘카테키즘’(catechism)이라 하는데, 보통 사전에서 ‘교리문답’으로 번역된다. 이 ‘카테키즘’은 라틴어로는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라 하며, 그것의 어원은 그리스어 ‘카테케인’(katēkein)으로서 “구두로 가르친다.”라는 뜻을 갖는다.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세례 지원자나 교회 전체의 교육을 위해 교리를 요약하고 생활의 지표로 주는 교육을 계속해왔다. 그리스도교가 공인 종교가 된 후에도 이 같은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유지를 위한 참회와 결부되어서 행해져 왔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의거 그리스도교 교리와 생활을 대중에게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이 같은 교리문답을 다시 만들어 시행했던 것이다.²⁾

이 같은 ‘교리문답’은 ‘요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교리서’라고 칭하는바 교회교육의 교본과 같은 것이다. 이 같은 문답식의 교육활동은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구약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곧 기독교의 진리를 인격적 성격과 공동체적 성격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질문과 대답의 교리문답 방식이다. 모든 교리문답이 기본구조로 삼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보통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답형식으로 엮어져 있다. 여기에 세례문답이나 입교문답을 준비하기 위한 ‘성례전’(세례와 성만찬)과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들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있어 이전에 나온 ‘교리문답’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 배태된 것으로, 현대적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³⁾ 이에 본 위원회는 이런 필요들에 부응하여 ‘요리문답’이란 이름을 ‘교리문답’이란 이름으로 개정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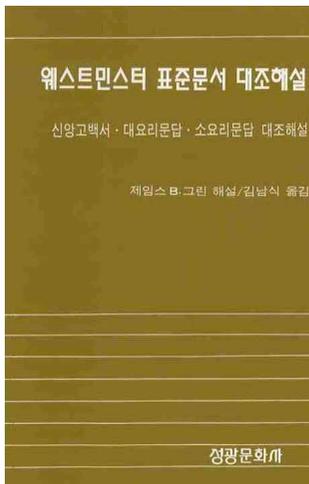
2) [네이버 지식백과] “교리문답”(catechism),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3) [네이버 지식백과] “교리문답”(catechism), 『두산백과』.

활에서의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보다 정교히 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최근에 출판된 이에 관한 책들은 요리문답보다 교리문답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차제에 그 이름을 ‘교리문답’으로 수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4. 본 개정을 위해 참조한 주요 자료들

1)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17세기 영국에서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 함께 만들어진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가 소요리문답의 뜻을 잘 파악하려면 대요리문답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의 참조자료들은 우리 교단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단들의 세례 문답집이다. 장로교회의 문답집들은 소요리문답을 근간으로 하여 오늘에 맞게 개정한 것들이다.

(1) 본 교단 『세례문답집』(최신 개정판), 『교리교육지침서』(지도자용)

(2) 합동 측의 『학습세례문답서』(개정판)과 김서택의 『학습세례문답 해설서』

(3) 기타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속에 포함된 내용들 [요리문답,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

3) 디지털 자료들

(1)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1646-1647, 현 우리의 요리문답)

- 본래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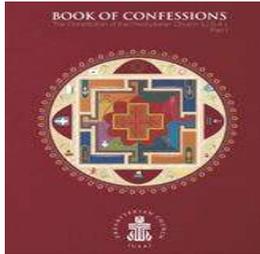
http://www.reformed.org/documents/wsc/index.html?_top=http://www.reformed.org/documents/WSC_frames.html

- 현대 영어로의 소요리문답 쉽게 풀어쓴 것:

<http://learns scripture.net/catechisms/WSCME/>

(2) 미국장로교회의 *BOOK OF CONFESIONS* (『신앙고백서』):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boc2014.pdf



(3) 미국장로교회(PCUSA)의 소요리문답에 대한 새로운 개정 내용: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theologyandworship/pdfs/biblical.pdf

(4) 현대 영어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http://matt2819.com/wsc/#1-3>

(5) 스코틀랜드 교회의 요리문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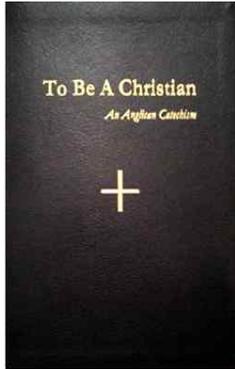
<https://www.ccel.org/ccel/schaff/creeds1.ix.vii.v.html>

(6) 아이들을 위해 쉽게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음(*Doctrinal Catechism Catechism for Young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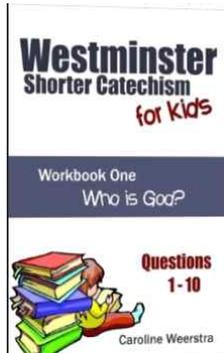
http://gdsmedia.org/freedownloads/04_cat_for_young_en.pdf

(7) 기타 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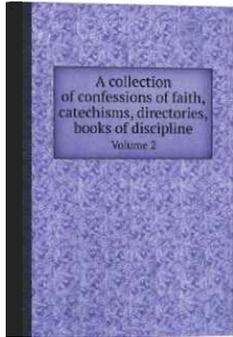
▶ 영국 성공회의 요리문답



▶ 어린이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 스코틀랜드교회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5. 교리에서 삶으로

1)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리문답

이 글의 앞에서 일반적인 교리문답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도신경, 십계명, 성례전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든 교리문답들이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준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행함에 의거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의 행실은 아무래도 좋은가? 이에 대해 어느 개혁신학자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 행위의 근거로서의 십계명에 대해 말하며 이에 교리문답은 우리의 행위의 규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이러한 바른 행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교리문답은 다시 묻는다. 이에 대해 교리문답은 그러한 바른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될 때 그러한 바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은혜에 거하는 수단으로 예배, 말씀, 기도(주기도문), 성례전 등이 있음을 교회는 강조해왔다. 다시 요약하면 사도신경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도리를, 십계명은 인간의 삶의 원칙을, 주기도문 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줄곧 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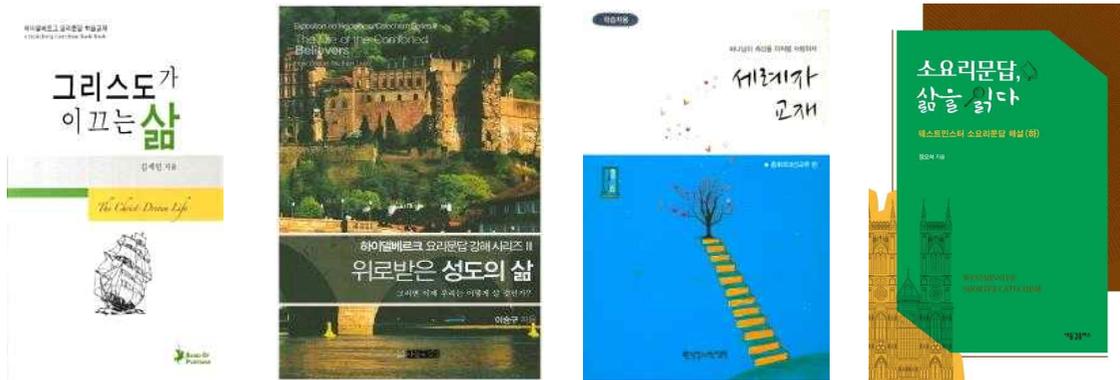
이에 새로운 교리문답도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먼저 믿음의 원칙으로서의 사도신경, 다음으로 우리의 행함의 원칙으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주기도문의 순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의 원리와 삶의 원칙의 두 가지 기둥은 바울서신

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바울서신들은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뒷부분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기서 이런 교리문답의 기본 골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믿음에 따른 구원의 도리(사도신경) ---> 하나님과 이웃 양측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행함의 원칙들(십계명) --->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따른 은혜의 수단(주기도문 등)

이상의 도식에서와 같이 교리문답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리적인 내용과 우리의 생활과 삶의 문제를 이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번 발간되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이 교리지침서의 역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논의했다. 교리문답이 경직된 교리의 전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아울러 공공생활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교리문답은 교회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되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있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리문답이 우리의 생활세계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함을 연구하는 여러 책들이 근래 들어 출간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학습교재: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2013).
- 『하이델베르트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1-3: 위로받은 성도의 삶』 (2015).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례자 교재』 (2016, 본 교단 국내선교부 편).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상) (하):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 (2015).



이와 같이 교리와 우리의 삶을 연결함을 강조하는 ‘교리문답’에 대한 연구는 최근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출간되는 잡지 *Theology Today* 속의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논문의 제목은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의 삶: 새로운 교리문답과 기독교윤리”이다. 교리문답을 기독교윤리의 차원에서 조명 한 논문인 것이다.



Life in Christ: The New Catechism and Christian Ethics

The first page of the PDF of this article appears below.
Click image below to view at full size.

Life in Christ: The New Catechism and Christian Ethics

CHARLES E. BOUCHARD, O.P.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was long awaited by some and feared by others. Those who eagerly anticipated its publication hoped it would settle, once and for all, the confusion that arose in the wake of theological changes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Others (mostly theologians) were less enthusiastic. We feared it might prematurely foreclose theological dialogue and stifle the vitality of doctrinal development. In the end, neither fears nor hopes were fully realized. The *Catechism* provides a clear outline of the Catholic theological tradition, which should stimulate catechetical efforts. The publicity that surrounded its publication has renewed Catholics' interest in their faith. But the *Catechism* has some significant limitations, not the least of which is some lack of clarity about how it should be used.¹

My comments on the *Catechism* will be limited to part 3, "Life in Christ," which is the ethical section of the volume. I will describe the general shape of the treatment of moral life found there, highlight several themes or concepts that underpin the whole section, and then raise some critical questions.

Part 3 follows a long-standing tradition of placing the moral section between systematic topics, such as God, the incarnation, salvation, and

« Previous | Next Article »
Table of Contents

This Article

doi: 10.1177/004057369605300204
Theology Today July 1996 vol. 53 no. 2
158-164

» Extract Free

Full Text (PDF)

Services

- ▶ Email this article to a colleague
- ▶ Alert me when this article is cited
- ▶ Alert me if a correction is posted
- ▶ Similar articles in this journal
- ▶ Download to citation manager
- ▶ Request Permissions
- ▶ Request Reprints

Citing Articles

- ▶ Citing articles via Google Scholar

Google Scholar

- ▶ Articles by Bouchard, C. E.
- ▶ Search for related content

Share



What's this?

Submit a Manuscript

Free Sample Copy

Email Alerts

RSS feed

More about this journal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SAGE journals

This journal is moving.
Visit our Platform Migration
Information portal.

Learn more >>

Most Read Most Cited

- ▶ Orlando, Political Rhetoric, and the Church
- ▶ Editorial: Remembering World War II
- ▶ Sanctified and Commercially Successful: Curses, On Gangsta Rap and the Canonization of the Imprecatory Psalms
- ▶ "Stages on the Road to Freedom": A Brief Introduction to Dietrich Bonhoeffer
- ▶ Larycia Hawkins and the One True God

이상의 책들의 제목에서 보는 대로 최근의 교리문답에 대한 연구들은 교리와 삶을 연결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리	와	삶
구원과 믿음의 도리	성령의 능력에 따른 성화	신자의 행함
조직신학적 과제		기독교 윤리적 과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인간과 전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인격의 변화	이웃 사랑(전도와 사회변혁)

우리는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그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변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취(anticipation)하게 되고 역사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새로운 교리문답의 또 하나의 중심적 구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같은 입장에서 본 위원회는 새로운 교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기독교 영성의 골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틀로 상정하였다. 새로운 교리문답은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수직적 영성과 이웃 사랑으로서의 수평적 영성을 통할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등의 내용을 다루며 이 두 가지의 병행적 구조에 주목하였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동시에(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및 전피조물과의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십계명	십계명 중의 1-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이 강조된다.	십계명의 후반부 5-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이 강조된다.
성례전	<세례>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교회를 이루게 된다.

	<성찬>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의 표징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 신앙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룸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이인칭 단수 부분, 일인칭 복수 부분, 송영으로 나누어진다. 본체 이인칭 단수 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기도로서 하나님 사랑이 강조된다.	본체 후반의 일인칭 복수 부분은 우리를 향한 기도로서 이웃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는 이웃 사랑의 기도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이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뜻, 곧 이웃의 뜻을 찾는 작업이다.

이에 있어 우리 시대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관계가 어떻게 이웃 사랑과 사회변혁의 길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다음의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믿음)--->인격과 품성의 변화(자아의 변화)--->삶과 행동에서의 변화(이웃 사랑의 행위)--->사회의 변혁(생태문제를 포괄)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는 기독교 영성의 구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자아와의 깊이의 관계	이웃과 사회 및 세상에 대한 수평적 관계
방향성	위로 향하는 운동	안으로 향하는 운동	밖으로 향하는 운동
목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와 동행하는 삶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로서의 덕의 함양	이웃 사랑과 세상의 변혁
윤리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바른 가치관과 선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가짐: 신중심적 전망	도덕적 행위자의 덕을 형성함	바른 판별을 통해 선을 바르게 실천함
구체 목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마음의 안식,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사랑, 성령 충만, 영적 분별력 갖기	자기 부인과 종말적 삶,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욕심의 억제	이웃 사랑과 섬김, 복음전도와 사회정의의 구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중보기도, 자발적 가난, 소비지향의 사회와 결별, 계획적 소비, 세계복음화, 세계기아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책, 돈과 권력의 바른 사용
신학적 전통들	관상의 전통 카리스마의 전통	성결의 전통	사회정의의 전통 복음전도의 전통 성육신의 전통

영적 훈련의 중심 수단	예배, 말씀묵상과 성경연구, 관상의 기도, 자연과의 교감, 고독을 받아들임, 금식	자기성찰, 예배, 기도, 침묵, 실천을 통한 인격 향상, 십자가에 대한 묵상	사랑과 섬김의 봉사, 세상에 대한 책임, 베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함, 서로의 죄를 고백, 용서와 화해, 공동체 생활, 인도훈련
관련된 기도 유형	위로 향하는 기도	안으로 향하는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
사랑의 방식	하나님 사랑	사랑의 마음	이웃 사랑의 행동

이상에서와 같이 20세기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의 영성은 개인적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이웃을 향한 수평적 영성과 더 나아가 사회의 구조적 변혁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로서 한 인간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일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을 배제하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오늘의 교리문답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서술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은 공공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되는 교리문답은 전체적으로 공공신학 (public theology)적 의미를 담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이런 공공신학적 입장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한 학술논문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학술논문] 공공신학교육을위한교본으로서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베스트** **신간**

영문제목 :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s a Manual for Public Theology
발행기관 : 개혁신학회 | 저자명 : | 간행물 정보 : 『개혁논총』39권 , 57~96쪽, 전체 40쪽

정 가 **6,600 원**
청구할인가 **4,950원** 교보문고 핫트랙스 롯데카드 최대 25%할인 [안내](#)
통합포인트 330원 [5% 적립] [안내](#)

파일형태 : PDF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결제 완료 후 72시간 동안 횡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1 문의](#)

[장바구니 담기](#) [학술논문 바로구매](#)

종합	국문초록보기	영문초록보기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	--------	--------	--------------

국문초록

참된 신자의 신앙고백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는 성경적이며 일관성 있는 공공신학적 교본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성도의 공적 삶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 성도의 공공신학적 삶을 위한 매우 훌륭한 교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교리문답은 공공신학의 목적, 방법론, 내용 등에 대한 많은 함의들을 제공해 준다. 대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공공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대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공공신학의 방법론은 성경을 토대로 하되 본성의 빛을 참조하는 것이며,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며, 공동체적으로 협력하여 공적 참여를 진행하는 것이며, 종말의 빛 아래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특별히 대교리문답의 심계명 해설 부분에서 공공신학적 의제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대교리문답은 성인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심계명의 각 계명들을 성인 신자의 공적 생활을 위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는 대교리문답을 공공신학을 위한 교본으로 삼아 가르침으로써,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보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접기\]](#)

6. 새로운 '교리문답'은 헌법 속의 전통적 신앙고백들과 우리 교단이 1986년과 2001년에 만든 두 가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됨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교리문답은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존의 신앙고백들을 존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신경(12세기 서방교회에서 공식 신조로 정착), (12)신조(1904년 인도장로교회가 채택한 것을 1907년 독노회가 세워져 채택한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 등은 우리 교단의 표준교리로서 본 위원회는 과거로부터 최근까지의 이런 신앙고백서들을 종합하여 본 교리문답의 내용에 습합시켰던 것이다.

기존의 소요리문답은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사도신경의 표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담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들려는 교리문답엔 최근 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의 두 가지의 내용을 덧붙여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있어 이형기 교수는 이 두 가지의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적 경직성을 많이 완화시킨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1) 먼저 금번의 교리문답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화해(reconciliation)를 강한 주제로 대두시킨다. 본 고백서는 제3장(예수 그리스도) 3항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다.

성육신 사건은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극에 이르렀다(빌 2:6-8). 그는 이와 같은 극단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막 10:45). 그것은 구약의 속죄제물의 완성으로서 그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번으로 영원하신 속죄제사를 드리셨다(히 7:17,27).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드린 **화목제물**이었으며(창 2:17, 히 7:22, 1요 2:2, 사 53:11), 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화해)**케 하셨다(고후 5:18-19, 엡 2:13-18).

이어 제6장 구원론 부분의 1항이다.

우리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격리되고 그 결과, 인간 사이에도 부조화와 온갖 불행의 상태에 놓여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엡 2:8),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의 종말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

제8장 국가 부분 6항에는 이 화해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가 통일이 되어 전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민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는 화해(화목)이란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새로운 「교리문답」에서 이러한 화해에의 강조를 다음의 항에 담아 강조하였다.

문 10: 사도신경의 전체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답: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은 두 종류로, 기독교적 신앙고백(마 16:16)과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고후 13:13).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성령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화해되었고(고후 5:18-19), 하나님과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됨을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골 1:20).⁴⁾

화해에 대한 주요한 참고문헌을 아래에 실었다. 아래의 슈라이터의 책은 화해 문제를 잘 정리한 책이다.

- 칼 바르트의 화해의 신학(‘바르멘 신학선언’ 참조)
- 1967년 신앙고백(화해가 주제). 미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우리 교단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 WCC 신학에서의 화해 신학
- 「신학연구」 제53집(2009, 한신대 간)에는 ‘화해’(reconciliation)를 주제로 여러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 Robert J.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2000).

2) 다음으로 본 교리문답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4) 문 12는 ‘화해’ 대신 ‘화목’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문 12: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예언자, 왕, 제사장의 중보자적 직분을 가지시고(딤후 2:5; 히 9:15) 인류와 우주만물(골 1:20; 엡 1:10)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롬 5:1, 11).

다음으로 우리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의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신앙고백서는 예배용으로 간단히 요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실으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위에서 보는 대로 이 신앙고백서의 주제는 매우 명확하다. 교제(코이노니아)이다.⁵⁾ 이 교제란 주제는 당시의 WCC의 중심된 논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5) 위형윤, “코이노니아를 통한 교회일치의 산티아고 문서 분석 -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 산티아고 문서 내용을 중심으로”(Analysis on Santiago Paper of the Church Unity Through Koinonia - Based on Santiago Paper in 5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신학과 실천」 제31호. 이 책은 WCC 신학에 있어 ‘코이노니아’란 주제를 다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8월 3일-14일까지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 대회의 주제 “신앙과 생활과 증거에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여”의 내용은 획일주의적 일치나 흡수 통합식(로마 가톨릭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가시적 일치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 교파들의 다양한 전통들을 하나의 공통 요인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파들이 무엇을 교회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할 것인가? 를 위하여 코이노니아를 통한 신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며, 그 목적을 신앙과 생활과 그 증거에서 선교와 사회참여를 이루는 코이노니아에 있다고 하겠다. 사실 이 대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1987년 코이노니아에 대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WCC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바 있고, 1991년 캔버라 WCC 총회에서 채택된 코이노니아로서 교회일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이 산티아고 대회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논의 되었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을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모으라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미리 맛보고, 기도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인류, 모든 피조물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일치는 사도적 신앙고백, 하나의 세례, 하나의 성찬식, 타교파의 회원권과 직제의 상호 인정과 화해, 증거, 섬김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했다. 그래서 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서론과 다섯 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은 “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 제I장은 코이노니아의 이해, 제II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 신앙고백, 제III은 그리스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신학을 많이 연구하여 오신 이형기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강화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위 두 개의 신앙고백서의 주제를 ‘화해와 교제’로서 간추릴 수 있는데, 그 두 단어의 의미는 상통하는 것이 많다. 양 당사자 간의 진정한 화해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를 통해 그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이웃과 전 피조물에 확산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이에 있어 새로운 교리문답의 위의 문 10은 화해와 함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이런 두 신앙고백서의 주제를 파악하여, 특히 새로운 교리문답의 문 13, 19, 22, 68에 ‘교제’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헌법 책에 나타난 최근의 두 신앙고백의 주제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문 19는 이 교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 19: “성도의 교제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로 확장되며,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로 이어집니다(요 17:21-24).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복음 설교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십니다(고전 12:12-27).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사랑과 하나 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시 133:1-3).

이어 문 22는 이런 교제(koinonia)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로 마쳐져서는 안 되며, 온 피조물과의 화해와 교제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의 교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로 확산되고, 그 교제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교제 및 인간과 전 피조물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함을 새로운 교리문답은 강조하고 있다.

7. 미래적 제언

이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교리문답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추후 아래와 같은 책들을 편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1)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번역상의 논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번역을 추진함
- 2) 총회 헌법 책에 있는 각 신앙고백서에 대한 표준적 해설서 만들
- 3) 새로운 교리문답에 따른 세례자 교육 지침서 마련

도 안에서 공동생활의 나눔, 제IV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공동 증언의 소명, 제V장은 코이노니아를 증진시켜 교회의 신장과 성취 그 기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 4) 개혁신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서 해설집 편찬
- 5) 국내 주요 교단들의 표준적인 신앙고백서들을 비교 분석(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 6) 어린이를 위한 쉬운 교리문답집 만들
- 7) 교단 내 각 교회들이 기독교의 복음 제시에 대한 교육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하는 교육의 내용들을 모아 오늘의 시대에 **표준적 초신자 교육교재**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 8) 새 교리문답에 의거한 초신자들을 위한 **바이블스터디 교재** 마련
- 9) 복음 제시(evangelism), 제자훈련(discipleship), 리더십(leadership) 훈련의 세 가지 기본 되는 표준적인 평신도 교육자료 만들
- 10)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전도지 만들
- 11) 신학대학 교과서용으로 신조학 책을 개정하여 편찬함
- 12) 미션 스쿨(중고등학교)을 위한 기독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들 편찬